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10월 31일 한인회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까지 단독 출마한 장영수씨(사진 오른쪽)와 부인 캐서린장씨. 한인사회의 인권과 미국사회 융화를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

## 매사추세츠 한인회장 후보, 장영수씨 단독 출마

선관위 4일 후보검증 후 이사회 인준절차 남아  
태권도체육관 운영, 미국인 부인도 적극협조  
한인들의 인권과 미국사회 융화에 최선을 다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제 42대 매사추세츠 한인회장 선거 후보에 멧두 은에서 태권도장, 장스태권도아메리카를 운

영하는 장영수 관장(49)이 단독출마했다. 김동원 선관위원장에 따르면 10월 31일 마감된 한인회장 선거 후보 등록 기간에 장영

수씨가 단독후보로 등록했다. 선관위는 이번 주 금요일인 11월 4일 오후 6시 우편 소재 한인회관에서 장영수 후보와 면담을 갖고 후보 검증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동원 선관위원장은 “필요한 100명의 서명지와 공탁금 등을 모두 구비해 등록을 완료했다. 후보 검증절차를 거쳐 이를 이사회에 통보할 것이며 최종 인준 ▶▶3면으로 계속



FALL BACK

### 이번 주 일요일 서머타임 종료

11월 6일 서머타임 종료, 긴 밤과 겨울의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이 11월 첫째주 일요일인 6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된다. 이에 따라 11월 6일 새벽 2시는 새벽 1시 한시간 전으로 바뀐다.

서머타임의 종료는 본격적인 미 동부의 겨울이 시작됐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올해는 다행이 첫눈이 내리지 않았고 예년보다는 조금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란 예보다. 서머타임이 해제되면 해가 이른 시간에 저물어 밤이 더 길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야외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 ▶▶4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2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제2회 동해-독도 공모전 이준호, 장휘 학생 전체대상

## 한국학교 협의회 동해독도 지명표기 조사 및 시정활동 공모전 시상식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해에 이어 개최된 제 2회 동해-독도 지명표기 조사활동 시정 공모전에서 이준호(9학년/뉴잉글랜드) 학생이 고학년 전체대상(총영사상)을 장휘(3학년/뉴잉글랜드) 학생이 저학년 전체대상(협의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회장 남일, 이사장 오인식)는 10월 29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강당에서 유기준 총영사, 홍순복 부총영사, 그리고 NH주 내슈아 한마음 한글학교, ME주 메인 한글학교, MA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북부보스톤 한국학교, 애머스트 한국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했다.

유기준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이고, ‘동해’ 명칭은 지난 수천년간 우리가 사용한 명칭이나 그동안 국제적으로 독도나 동해 명칭 표기 관련 오류 등 잘못된 부분이 많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학계 및 민간단체의 지

속적인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중”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명표기 조사활동 공모전에 참가한 학생 및 학부모와 교사 등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풀뿌리 운동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면 궁극적으로 잘못된 인식들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며 모든 일의 출발은 ‘깊은 관심과 사랑’ 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는 그 자체가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일 협의회 회장은 “대회를 후원한 대한민국 외교부와 이번 제 2회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보스턴총영사관 유기준 총영사님 및 강연회 및 대회 상품 지원을 위해 수고해 주신 총영사관 직원 준비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참가 학생들과 교사 및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말했다고 오인식 이사장도 행사에 각 학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 및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각

지역 한국학교 선생님 및 학부모님들과 협의회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제 2회 대회에는 80여 동포 학생들이 해당 학년별로 그림일기(K-2), 포스터(3-5), 에세이(6-8), Presentation/발표(9-12학년) 4개 부문에 참가작품을 제출했다. 대회 1차 심사는 협의회 소속 학교 선생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맡았으며 각 부문의 대상 수상작품 중에서 뽑은 전체대상 심사는 경희대 주성재 교수(동해 연구회 회장), 반크 박기태 단장과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 협의회 오인식 이사장이 맡았다.

지난해 전체대상을 받아 대상 수상 대신 수여하는 협의회장 특별상은 포스터 부문의 장건(뉴잉글랜드) 학생이 수상했다. 저학년 부문 전체 대상은 장휘(포스터 부문/뉴잉글랜드) 학생이, 고학년 부문 전체 대상은 이준호(에세이 부문/뉴잉글랜드) 학생이 수상했다. 전체대상 수상자 지도교사상은 박미희 교사와 이선진 교사가, 전체대상 수상학교 상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수상했다.



고학년 전체대상인 총영사상을 수상한 이준호(왼쪽), 저학년 전체대상 협의회장상을 수상한 장휘

이날 시상식에서 그림일기 부문은 윤미아 직전 이사장이, 포스터 부문은 안영례 교장, 에세이 부문은 장명술 보스톤코리아 대표가, 발표 부문은 오인식 이사장이 맡아서 시상했다.

주성재 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열심을 다해 참가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낸 동포 2세들의 열정을 칭찬하고 싶다” 고 말하고 “작품들을 심사하면서 조국에 대한 2세들의 사랑이 참 크다는 것을 느꼈다” 면서 “지난해 강연회 때 ‘동해 독도 지명표기 조사활동은 오케스트라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 이라고 말했는

데 바로 ‘오늘 이번 공모전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오케스트라에 참여해 악기를 연주하신 분들’ 이라고 심사평을 전했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는 내년 3월 2023년도 교사사은회 및 전반기 교사연수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회 행사 참여 및 문의는 협의회 홈페이지(www.naks-ne.org) 또는 , 이 메 일(naks.ne.us@gmail.com), 전화(508-523-5389)로 연락하면 된다.

이번 대회 저학년 부문 전체 대상 NAKS-NE회장상을 수상한 장휘 학생은 ‘바른 >>3면으로 계속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제2회 동해-독도 지명표기조사및시정활동공모전 수상자 명단**

전체 대상	보스턴 총영사상 (6~12학년 부문)		이준호(뉴잉글랜드 한국학교) 9학년 Presentation/발표 부문			
	NAKS 뉴잉글랜드협의회 회장상 (K~5학년 부문)		장 휘(뉴잉글랜드 한국학교) 3학년 Poster/포스터 부문			
부문	학년	부문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강제상
포스터	5	장 휘(뉴잉글랜드)	*협의회장상 특별상(2021년 공모전 전체대상 수상)*			
그림엽기 부문	K	김한영(북부보스톤)	윤라미(매인 한글)			
	2	박준영(북부보스톤) 2학년	조 은(뉴잉글랜드)	김민주(메머스트)	안윤기(뉴잉글랜드)	
포스터 부문	4	김나연 (매인 한글) 4학년	최서연(개인 참가)	김재현(매인 한글)	정윤지(개인 참가)	윤루이(매인 한글)
	5		안현기(뉴잉글랜드)			
에세이 부문	6	오유준 (뉴잉글랜드) 7학년	김예린(메머스트)	김민재(메머스트)	김나연(매인 한글)	
	7		김주현(뉴잉글랜드)	이소피아(개인 참가)	안희기(뉴잉글랜드)	
	8		미다영(뉴잉글랜드)	최정민(뉴잉글랜드)	나예준(뉴잉글랜드) 최재윤(뉴잉글랜드)	남윤우(뉴잉글랜드) 신승(대슈머클마을) 김예린(메머스트)
Presentation 발표 부문	9	조유서 (뉴잉글랜드)	김다현(뉴잉글랜드) 이명걸(뉴잉글랜드)	윤지욱(메머스트) 송민(뉴잉글랜드)	권시마(뉴잉글랜드) 김유진(뉴잉글랜드) 김혜림(뉴잉글랜드) 백종우(뉴잉글랜드)	
Presentation 발표 부문	10	최종은 (뉴잉글랜드)	서예린(뉴잉글랜드)	김예린(뉴잉글랜드) 김종민(뉴잉글랜드)	이화은(뉴잉글랜드) 진승범(뉴잉글랜드) 황규민(뉴잉글랜드)	
전체대상 수상작 학교상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학교장 : 남일	
전체대상 수상작 지도교사상			K-5 grade (출품 부문: Poster/포스터) 지도교사상 : 박미희		6-12 grade (출품 부문: Presentation) 지도교사상 : 이선진	

▶2면에 이어서 표기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Sea of Japan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다니고 있는 학교에 East Sea라고 적혀있는 지도 퍼즐을 사서 친구들과 선생님께 나눠주고 동해에 한국의 땅 '독도'가 있다고 알려주며 친구, 선생님과 퍼즐을 함께 맞춰보니 뿌듯했다"고 밝혔고, 고학년 부문

전체 대상 총영사상을 수상한 이준호 학생은 "지난 2년 동안 공모전 행사에 참가하는 동안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세계 2차대전 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같은 명백한 증거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 진짜 이유는 증거부족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나라를 잃었던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전세계에 알리고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매사추세츠 한인회장 후보, 장영수씨 단독 출마**

▶1면에 이어서 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회장 인준까지 절차상의 과정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날짜가 향후 1-2주내에 결정된다면 장영수 단독 후보는 11월 내로 차기 한인회장으로 인준된다.

장영수 후보는 김경원 전 한인회장 등과 20년 전 초기에 태권도를 미국학교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으로 소개했던 인물이다. 장 후보는 "체육관은 제자들이 대부분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는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일을 할 때가 됐다. 그동안 많이 받았으니 한인사회에 환원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한인들의 인권과 미국사회 융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출마의 이유를 밝혔다.

장 후보는 "과거 해버힐이나 지금의 멧두은 등의 상인연합회에 가면 한국사람이나 동양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인사회가 미

국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미국사회 단체장들을 찾아다니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또 "내가 미국인이 되고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과거 매사추세츠 태권도 챔피언 출신이며 30여년간 사업을 해와 미국사회와 많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장점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영애 한인회장님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으니 하 시던 것을 잘 이어받아서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한인사회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다른 한인분들과 좀 더 나눌 수 있도록 화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한국국가대표 시범 단코치, 미국태권도협회 MAC 심판 부위원장, 보스톤 체육회사 무총장, 매사추세츠 태권도협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editor@bostonkorea.com


#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 플루 확산 심각, 13년 만에 최악의 플루시즌 예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플루가 예년보다 빨리 그리고 강하게 미국을 덮쳤다. 병원은 이른 시기에 기록적인 수의 환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연방 정부가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겨울 최악의 플루 시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플루 시즌은 일반적으로 10월에서 5월까지로 보지만 피크를 이루는 기간은 12월에서 1월이다. CDC에 따르면 올해에는 무려 6주나 빠르게 플루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미 실험실을 통해 확인된 플루 환자만해도 8십8만명에 달한다. 입원환자는 6천9백명, 플루로 인한 사망자는 360명이다.

CDC가 실험실 확진수, 병원입원, 의사진료, 사망자수 등을 기초로 플루의 심각도를 추정하는 지수에 따르면 2009년 스와인플루 팬데믹 이후 그동안 올해처럼 큰 부담의 플루 시즌은 발생하지 않았다.

CDC 플루감시팀의 팀장인 감염병학자 리넷 브래머 박사는 “아주 이례적이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이것이 플루와 다른 호흡기 질환의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 고 말했다.



현재 플루는 남부와 남동부에서 만연하고 있으며 점차 대서양 연안을 타고 북상하고 있다. 즉 보스톤도 곧 플루의 세력권 안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료는 정말 암울하다” 고 윌리엄 샤프터 전국감염병재단 디렉터이자 밴더빌트대학 감염병학 교수는 말했다. “플루가 이르게 덮친 것은 물론이고 플루 증세 또한 심각하다. 우리는 잠시 영화광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화가 시작될 것이고 나중에는 공포영화로 기억될 수도 있다” 고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를 더욱 우려하게 만드는 것은 시즌이 시작된 상황에서 플루백신 접종율이 예년에 비해 훨씬 적다는 점이다. “이것이 더욱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13년만에 최악의 플루 시즌의 서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그는 밝혔다.

플루 감염자 수는 올해 예상수인 8백에서 1천3백만의 8분의 1지점까지 도달했다.

백신접종율은 지난 몇 년간보다 훨씬 낮은 상태다. 1억2천8백만 도스의 백신이 배포됐으며 이는 지난해 1억3천9백만, 그리고 2020년 1억 5천4백만에 비해 낮은 수이다.

최근 플루 자료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기타 바이러스 대처에 힘겨운 미국의료체계에 더 많은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아이들은 RSV로 인해 기록적인 수감 병원을 찾고 있다.

플루 백신의 효력은 매년 다르지만 약 40%에서 60%의 효과를 내고 있다. 브래머 박사는 올해 백신은 효력이 좋아 “힘든 겨울에 그나마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다” 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 이번 주 일요일 서머타임 종료

▶▶1면에 이어서  
아침시간에 운동을 하든지, 대체할 수 있는 실내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보스톤을 비롯한 미국 동부의 한국과의 시차는 현재의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1시간 늘어난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서부 지역과 서울의 시차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바뀐다. 서울의 시간은 미국 동부보다 14시간, 서부보다는 17시간 빠르게 된다.

대부분의 컴퓨터 기기는 자동으로 서머타임 해제가 적용되어 시간이 바뀌어 과거와 같은 혼동은 비교적 줄었다. 직접 바뀌어야 하는 벽걸이 시계, 오래된 차량의 시계는 토요일인 11월 5일 밤에 시계 침을 한시간 뒤로 돌려 놓으면 착오를 막을 수 있다. 시간을 앞으로 돌려야 할지 뒤로 돌려야 할지 혼동이 되는 경우 ‘Spring forward Fall back’ 으로 기억하면 쉽다.

hsb@bostonkorea.com

##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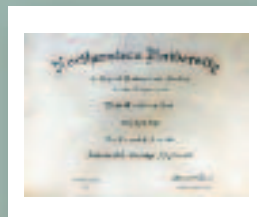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재단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 코로나바이러스 BQ.1과 BQ.1.1 하위변이 확산 급증 추세

CDC 자료 결과 최근들어 급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최근들어 우려를 낳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하위변이 BQ.1과 BQ.1.1가 급증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CDC의 추정치에 따르면 면역 회피 변이인 BQ.1과 BQ.1.1은 미 전역에서 각각 14%와 13.1%를 차지해 총 25%가 넘었다. 이는 불과 1주전인 9.4%와 7.2%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약한달 반전인 9월 17일에만 해도 이 두 가지 하위변이들은 미국내 전체 감염의 1%도 되지 않았었다.

BQ.1과 BQ.1.1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계이며 그동안 미국내 감염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지배종 BA.5에서 갈라져 나온 변이들이다. 현재 BA.5는 50%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CDC는 BQ.1과 BQ.1.1 뿐만 아니라 최근 싱가포르에서 맹위를 떨쳤던 XBB 하위변이도 주시하고 있다. XBB 하위변이는 아직 미국에서는 드물다.

전문가들은 BQ.1.1이 특별히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이 하위변이는 빠르게 자랄 뿐만 아니라 모노



클로날항체치료를 회피하며 환자의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특히 추운 겨울을 앞두고 BQ.1과 BQ.1.1은 현재에도 현저한 수준으로 감염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폭증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유럽 질병통제센터는 지난 주 경고한 바 있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BQ.1, BQ.1.1, 와 XBB가 모두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에 비해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지금까지 미국내 코로나바이러스는 급증세를 보이지 않아왔

다. 이로 인해 팬데믹은 상대적으로 정체가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매일 수백명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하고 있다. CDC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하루에 평균 390명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향후 추가 코로나바이러스 증가를 막기 위해 미국민들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권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도구 백신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hsb@bostonkorea.com



## 파워볼 또 당첨자 없어 잭팟 15억달러로

로터리 사상 3번째 큰 잭팟, 5일 토요일 추첨 2억9천220만 분의 1 확률 주인공 11월 5일 나올까 주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잭팟 12억 달러의 파워볼 당첨자가 없어 이번 주 토요일인 5일 추첨하는 파워볼의 잭팟이 최소 15억달러로 올라갔다.

현재의 잭팟으로 계산했을 경우 지난 2016년 파워볼 최고 당첨 금액인 15억8천6백만달러(\$1.586 billion)에 약간 못미치는 금액이지만 추첨 직전까지 로터리 티켓이 불타나게 팔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수치를 넘어 파워볼 사상 최대 잭팟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의 잭팟 금액만으로도 매

가릴리언 15억3천7백만달러에 이어 사상 3번째 큰 로터리 당첨금액이다.

2일 밤 당첨번호는 02, 11, 22, 35, 60이었으며 파워볼은 23이었다.

잭팟은 29년간 연금형식으로 지급되며 현금 일시불로 선택할 경우 최소 7억4천5백90만 달러다. 이 금액은 연방 및 주 세금을 제하지 않은 금액이다.

파워볼 티켓은 \$2이며 1불을 더 내면 파워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hsb@bostonkorea.com

# 면역력 재충전

##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J.K. PLUMBING & HEATING

##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 (Dish 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 978.303.7000

업체관 [jkeum56@gmail.com](mailto: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놀부반 공개수업 모습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학부모들 참여 공개수업 가져

## 자녀 한글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개최된 공개수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역 최대규모의 뉴잉글랜드 한국 학교(교장 남일, 학부모회장 양원미)는 10월 29일 2022학년도 '1차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 행사를 가졌다.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학부모 초청 공개 수업행사는 2주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주 이번 1차 행사는 기초1~4 과정·세종1~4과정 및 문화교육, 종이접기반과 음악교육 등 11개 학급을 대상으로 열렸고 11월 5일에는 초급1-3, 중급1-3, 고급1-3 과정 학급 및 서예교육과 미술교육, 작문1-3교육 학급 등 14개 학급을 대상으로 2차 행사가 열린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 학급의 수업을 참관한 후 소견서를 통해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학교

에서는 가정과 소통하며 효과적인 수업이 되도록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하다." 고 감사를 표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자원봉사 등 다양한 제안들도 제시했다.

이날 처음으로 참관수업 행사에 참가한 기초2과정 학부모는 "한글 수업이라 지루할까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놀이형식으로 수업하시며 한 단어에 받침이 달라지며 발음과 쓰는 연습을 함께 하니 기억에 남고 재미있었다." 고 적었다.

기초4과정의 학부모는 "학생들이 균등한 기회로 수업을 참여할 수 있어 좋았고, 다양한 교구를 필요적 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았다." 고

밝혔다. 한편 이중언어 과정인 세종2반의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는 "정말 즐겁게 수업에 임하시는 선생님 모습이 참 좋았다. 세종과정 아이들은 한글수업을 흥미롭게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차근차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린다." 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뉴튼 오크힐 중학교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2세와 성인들의 한글교육은 물론 한국역사와 문화교육, 미술교육 및 음악교육을 위한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은 남일 교장 전화(508-523-5389), 이메일 (koreanschool.ne@gmail.com) 또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홈페이지 www.ksneusa.org를 통해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 세계적 첼리스트 최하영, 보스톤서 미국무대 데뷔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1위 보스톤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협연 보스톤 심포니 홀에서 첼로독주, 한인들 할인코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22년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수상한 첼리스트 최하영(24)씨가 11월 12일 심포니홀(Boston Symphony Hall)에서 보스톤필하모닉오케스트라(Boston Philharmonic Orchestra)와 솔로 연주를 통해 미국 무대에 데뷔한다.

최씨는 12일 토요일 저녁 8시 BPO의 협연으로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을 연주한다. BPO는 유명 지휘자인 벤자민 젠더(Benjamin Zander)가 이끌고 있는 오케스트라로 1979년 창단돼 보스톤의 주요 오케스트라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최하영씨는 지난 6월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음악 콩쿠르로 꼽히는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 부문에서 우승했다.

BPO는 최하영씨 데뷔 무대를 기념해 한인들에게 티켓을 50% 할인된 금액(할인코드 KOR50)

에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10에 티켓(할인코드 STU-DIS)을 구입할 수 있다.

<https://bostonphil.my.salesforce.com/ticket/#/events/a0S8Y0000aHmP3UAK>

최하영씨는 2006년 금호영재 콘서트로 데뷔했으며 2011년 브람스 국제 콩쿠르 최연소 1위, 2018년 펜데레츠키 국제 첼로 콩쿠르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와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거쳐 영국 퍼셀 음악학교에서 수학했다. 독일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쳤다. 2019년 금호악기은행 수혜자로 선정되어 파올로 마치니 첼로를 임대 받았다. 2017년부터 크론베르크 아카데미 부설 에마누엘 포이어만 콘서트토리에서 강사로 활동해왔고 2020년부터 베를린 국립예술대학에서 수학하며 에투알클래식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YOUNG DENTISTRY**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MA 매트리스 및 의류 쓰레기 폐기 금지, 어떻게 처리하나?

11월 1일부터 금지 시작, 오염된 매트리스와 옷이지만 폐기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는 11월 1일부터 매트리스와 옷, 신발 등의 쓰레기 폐기를 금지시켰다. 주 환경부는 이들을 버리지 말고 기부하거나 리사이클할 것을 권장했다.

이번 매트리스 및 섬유류 쓰레기 금지 계획은 지난 10월에 발표된 환경청의 2030년 쓰레기매스터플랜에 따른 것으로 주 전역에서 쓰레기를 매년 1백70만톤을 줄여 2030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50까지는 90%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기부 및 리사이클 방법이 쉬운지 여부다.

DEP 웹사이트에 따르면 주민들은 리사이클링워크스(<https://recyclingworksma.com/>)를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웹사이트 검색틀을 사용해 리사이클 또는 기부 센터를 찾아낸다. 버리고자 하는 아이템, 예를 들면 옷, 자전거, 책, 컴퓨터, 매트리스, 배터리 등을 선택한 후 지역을 선택하고

가장 인근의 리사이클링 센터를 선택한다. 이후 드랍오프, 메일발송, 또는 픽업 등의 방법을 선택한다. 대부분 일정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새로운 매트리스를 구입할 경우 판매 회사가 기존의 매트리스를 리사이클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페이스북 그룹 "Buy Nothing" -이는 이웃들에게 중고 물건을 무료로 대여해주거나 기부하고 또는 요청하는 곳이다. 이곳을 이용해 의복, 신발 기타 섬유제품들을 나눌 수 있다.

-보스톤코리아 무료나눔-보스톤코리아 사고팔고 게시판 페이지를 이용해 각종 물품을 무료로 나누는 무료 나눔을 선택한다.

◆보스톤 주민들은 시 전역에 있는 드롭 박스에 옷을 드랍오프할 수 있다. 물품 종류는 신발, 옷, 백팩, 수건, 할로윈 코스튬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젖어 있거나 더럽거나, 곰팡이가 피었거나, 너무 부피가 큰 아이템은 받지 않는다. 또한 가구도 이곳에

서 받지 않는다. Helpsy(<https://www.helpsy.co/>)를 통해서 커브사이드에서 무료로 옷과 섬유류를 가져가도록 시간을 잡을 수 있다.

◆구세군(Salvation Army), 굿윌(Goodwill), 부머 랭스(Boomerangs), 세이버스 트리프트스토어(Savers) 등은 매트리스를 받지 않지만 모든 종류의 옷을 받고 있다. 이들 웹사이트를 통해 기부하도록 한다.

◆오염된 매트리스, 옷은 쓰레기 처리 가능; 환경청은 주민들이 곰팡이가 피었거나 기름 또는 위험물질, 오물 등에 오염된 매트리스와 옷 등은 쓰레기로 버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주민들이 쓰레기로 버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옷을 더럽히거나 매트리스를 오염시켜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주민들은 매트리스가 오염으로 인해 기부하거나 재생이 불가능해 버려야할 때 환경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트리스의 개수, 상태, 보관장소 등을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

[hsb@bostonkorea.com](mailto:hsb@bostonkorea.com)



## 매사추세츠 잉여세수 환급 11월 1일부터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정부는 3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 환급을 11월 1일부터 약 6주에 걸쳐 체크와 직접 은행 입금을 통해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세금보고를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한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오는 12월 15일까지 6주에 걸쳐 무작위로 환급을 받게 된다.

납세자들은 이번 세금환급이 최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받게 될 전망이다. 주 예산청 소피아 캐포니씨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2021년 납세금액의 14%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베이커 행정부는 지난 9월 13%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10월 17일 세금연장보고 기간이 마감된 후 약 14%에 달할 것으로 금액을 약간 높였다. 환급은 무작위로 진행되며 알파벳 순 등의 일정한 순서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번 세금환급은 지난 1986년에 제정된 주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지난 40여년간 두번째로

현실화됐다. 이법에 따르면 세수의 증가분이 임금의 증가분보다 높을 경우 잉여분을 납세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지난 9월 수잔 베프 감사가 최종 확정된 환급총액은 29억4천달러(\$2.94 billion)였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들은 지난 10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친 사람들이며 미납세금, 미납 차일드서포트, 기타 미납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차감되어 남은 금액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사람들도 여전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023년 9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완료하게 되면 보고 후 약 한 달 후 환급금을 받게 된다.

세금환급금은 직접 은행 입금의 경우 "MASTTAXRFD"란 표시로 나타난다. 메일로 받는 주민들의 경우 환급법과 환급의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가 포함된다.

세금 환급은 오로지 세금납부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고액 세금 납부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Kim Law Office**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 도시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하이텍 플러밍

HIGH-TEK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Specialize in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Nail Salon Ventilation.

Residential & Commercial, New Construction, Remodeling

---

레스토랑(Restaurant), 네일살롱(Nail Salon), 레지덴셜(Residential) 다수 공사 경력

Master PL #15210

Fully Insured

David : 617.828.2993

Kevin : 508.215.9211

[hightek2010@yahoo.com](mailto:hightek2010@yahoo.com)

LOVE THE LORD, LOVE THE LOST



보스톤 주안에교회

IN CHRIST CHURCH OF BOSTON

주 일 예배 (SUNDAY WORSHIP) : 2 PM

금요일기도회 (FRIDAY PRAYER) : 9 PM (zoom)

새벽기도회 (MORNING PRAYER): 5:30AM (zoom)



전성우 목사 (Rev. Peter Jun) 978-835-6553

70 Colchester St. Brookline, MA 02445 @ Longwood T Station (D Line)

# 대법원 대입 어퍼머티브액션 폐지 심리... 진정한 패자는 아시안?

## 어퍼머티브액션에 대한 전체적 조망과 고민이 필요할 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50여년간 미국 교육 이념을 지배하던 어퍼머티브액션(Affirmative Action)이 시험대에 놓였다. 보수가 절대우위를 차지하는 미국 대법원은 10월 31일부터 어퍼머티브액션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심리 후 판결은 전국적인 대학 입시에서의 어퍼머티브액션 폐지로 굳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미국인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판결을 뒤집는 보수적인 판결을 서슴지 않아왔다. 지난 6월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낙태가 헌법적인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거대한 미국인들의 분노를 사게 됐다.

그러나 대입에서 어퍼머티브액션 폐지는 낙태와 달리 전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퓨리처의 조사결과 미국인의 4분의 3은 피부와 인종이 대입의 고려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민권운동(Civil Right)의 핵심이 피부와 인종을 통한 차별의 철폐이므로 얼핏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 반세기동안 대학들은 어퍼머티브액션이 미국사회와 대학의 사명에 핵심적인 것이라 주장해왔다. 대입 심사에서 인종을 고려해 유색인종을 우대하는 이 정책이 캠퍼스의 다양화를 낳으며 이는 곧 미국을 관용적이고 균등한 단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길이라고 대학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퍼머티브액션 폐지는 주로 명문

대의 입시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아이비리그, 리버럴 아츠 칼리지, 명문 주립대 등 지원자는 많고 합격자들은 적은 곳들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명문대에 다니지 않는다. 엔젤 페레즈 미대입 상담협회 대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간단한 입학조건과 높은 합격율을 보장하는 대학에 다니며 “결코 사회적으로 가공된 대학”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폐지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학은 결코 인종적 다양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유명대학에서는 단기적으로 흑인, 히스패닉 그리고 미국 원주민들의 입학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특히 하버드의 경우 학부 입학생 중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의 수는 7천명이었지만 향후 4년내 최대 1천명까지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입시를 심리하지만 결국 하버드 대학의 입시가 주요 논쟁거리다. 어퍼머티브액션의 폐지로 인해 누가 이득을 얻는가? 누가 잃게 되나 그리고 이런 대입이 공정한 것인가 하는 논쟁을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퍼머티브 액션 논쟁은 얼핏 입시에서 인종과 피부 고려 폐지 여부로 보이겠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하버드의 아시안어메리칸 차별이란 문제로 두드러지고 있다. 추후 이 문제는 좀더 살펴보자.

어퍼머티브액션 찬성 측은 이로

인해 모든 인종의 학생들이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대학입시의 가장 문제적인 관행은 뒤로 두고 어퍼머티브액션에 과도한 논점이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텡스대학 사회학자 나타샤 워리쿠는 실제로 레거시 입학(부모가 동문이거나 대학에 기부한 자녀 특혜), 운동선수 입학, 지역적인 다양성 고려 등이 훨씬 대입에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어퍼머티브액션 반대론자들은 다양성의 논리는 잘해야 과장된 것이라 주장한다. 인종의 다양성은 한 주장일 뿐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자유주의 법학자 일리아 소민(Ilya Somin)이 적은 것처럼 기껏해야 “조잡한 인종적 스테레오타입”을 가리는 얇은 덮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인종보다 훨씬 시험점수가 높은 아시안어메리칸들의 경우 훨씬 더 낮은 수의 입학만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하버드는 법정에서 어떤 종류의 인종적인 입학 쿼터를 유지한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아 소민은 “대학들은 아시안을 혐오해서나 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라기 보다는 너무 많은 아시안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다른 인종은 너무 적게 될 것이라는 단순한 우려”라고 지적한다.

이번 하버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인 공정입학을위한학생그룹(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은 아시안어메리칸 지원자들에게는 높은



점수를 요구하고 “개인 평가”라는 주관적인 평가항목을 적용해 지원자의 친절함, 용기, 그리고 “긍정적인 인성”을 평가했으며 이것이 감점의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는 법정에서 아시안 지원자들에게 주어졌던 “감점”은 사회경제적상태, 의도한 경력 등 인종과 상관성이 있는 기능적인 요소에 기인한 것이며 결코 인종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 했었다. 하버드를 대리한 변호사는 “하버드가 의도적으로 아시안어메리칸들을 차별했다고 결론 지을만한 합리적인 사실증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보스톤 연방지법 앨리슨 버로우 판사는 “부적절한 차별을 밝혀낼 수 있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하버드의 손을 들어줬다.

거슨 하버드 법대 교수는 대법원이 어퍼머티브액션 폐지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하급 법원이 잘못했다는 것을 발견할 필요없이 과거 그루터(Grutter) 판결하에서 어떤 종류의 인종적 고려 입학정책이 위법이라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질문은 그러저 판결

을 뒤집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며 입학에서 어떻게든 인종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선언하면 된다”고 대법원의 판결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말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공정입학을위한학생그룹은 어퍼머티브액션이 14차 수정헌법 균등한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텡스대학의 워리쿠 교수는 블럼이 이끄는 SFFA의 시민인권주장이 아시안어메리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인권법안은 흑인들을 인종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 흑인들의 대학 입학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퍼머티브액션은 명문대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1960년 이후 어퍼머티브액션은 미국내 캠퍼스의 얼굴을 바꿨다. 과거 명문대는 미국의 인종을 반영해 백인이 배타적 다수를 차지했었다. 현재 하버드 신입생 학년을 보면 흑인이 16%(미국인종의 14%), 히스패닉 13%(미국 내 ▶▶11면으로 계속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Insurance Agency in Malden is hiring bilingual (English/Korean) Insurance Producer (Property & Casualty)

Call Joe Scholnick  
(978) 468 -2554, (978) 468 -1792, (781) 322-2350

요가씨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 처진 힙을 살리자! 새벽요가 DAY 13

유독 하체에 근력이 약하신 분들, 엉덩이가 평평하거나 처진 분들, 무릎이나 다리가 약해 뛰거나 오래 걷기가 힘든 분들에게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하체 운동을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라이브 요가 수업에서 반응이 좋았던 저항밴드를 이용한 운동들인데요, 밴드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동작들이니 영상을 보시며 따라해보세요. 주 2-3회 정도 반복하시기만 해도 둔근의 힘이 생겨 한달만에 변화된 허벅지와 엉덩이 라인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달동안 한국어 유튜브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에서 진행중인 새벽요가 Day13편을 찾아 따라하시면 더 쉽고 이해가 빠를거예요.

## 1. 사이드라이딩 힙익스텐션 (Side Lying Hip Extension)

1단계 사진처럼 오른 팔꿈치를 대고 옆으로 누워줍니다.

2단계 어깨가 팔꿈치 위에 있도록 정렬을 맞추고 두 엉덩이도 수직으로 위치하게 맞춰주세요.

3단계 복부의 힘을 주며 엉덩이를 바닥에서 떼어줍니다.

TIP! 복부의 힘이 풀리면 상체가 바닥으로 처져 어깨가 아파요. 복부의 힘으로 어깨를 귀에서 멀리 보내며 상체를 일으켜줍니다.

4단계 구부렸던 위에 있는 다리를 들어 멀리 차줍니다. (resistance band가 있다면 사용하면 강도가 올라갑니다.)

5단계 뻗은 다리가 사선으로 길게 퍼지는 동시에 엉덩이와 복부는 강하게 수축해줍니다.

TIP! 자세유지가 어려운 분들은 엉덩이를 내리고 다리를 뻗어주는 연습부터 해주세요.



## 2. Prone Frog Hip Extension

1단계 배를 바닥에 대고 무릎을 구부려 발꿈치를 서로 붙여줍니다.

2단계 이마를 손등위에 올려놓거나 살짝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3단계 서로 발꿈치를 밀어내며 강하게 엉덩이를 수축해 무릎을 바닥에서 떼주세요.

TIP! 허리가 불편하시다면 무리해서 무릎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4단계 구부렸던 무릎을 펴서 길게 펴줍니다.

5단계 발을 몸의 중심부에서 멀리 보낸다고 생각하며 엉덩이를 조이며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해주세요.



## 하연쌤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남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다.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기간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트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학생 만족도 극대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나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 하연쌤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온라인도 통치한 2021년 온라인수업으로 선생님께 소중하게 직접 자세교정도 받고 싶다면? 매주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수업들 신청하고 싶어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치터/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http://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 2022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Experts



SPONSOR CONTENT / REAL ESTATE EXPERTS



**Jason Jeon**  
Compass  
Cambridge, MA | 617.642.5670  
jeon.jason@compass.com

Jason Jeon brings over a decade of experience and excellent customer service to his real estate work, as well as a commitment to listening closely and providing follow-through. He builds strong relationships with his clients, and maintains those relationships through genuin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He also provides strategic real estate advice, data-driven marketing solutions, and transaction management service to his clients across many markets surrounding Boston. Jeon utilizes a team of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to assist with his clients' buying and selling needs, including stagers, painters, designers, handymen, and inspectors.

His business is built on dedication, credibility, consistency, and determination, while also emphasizing his ability to cater and adapt to all of his clients' real estate needs. Jeon is committed to listening to his clients and using his best negotiating skills to ensure the best outcome in every transaction.

BOSTONMAGAZINE.COM 111

## Boston Magazine's Top Producing Real Estate Experts 선정



### Jason Jeon

제이슨 전  
Vice President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2022 보스톤 매거진의 Top Producing Real Estate Experts 중 한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Dedication), 믿음(Trust), 결단력(Determination)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 대법원 대입 어퍼머티브액션 폐지 심리... 진정한 패자는 아시안?

▶▶8면에 이어서

19%), 백인이 40%(미국내 59%) 그리고 아시아인이 28%(미국내 6%)로 구성되어 있다.

하버드 학생회회장인 노아 해리스는 대학의 다양성은 일종의 계시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장 가난한 주이며 대부분이 백인 또는 흑인”인 미시시피 출신은 그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아마 삶의 마지막까지 거의 이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 라는 것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금지되면 어떻게 되나?

1998년 캘리포니아가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하면서 대부분의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은 이전이라면 들어갈 수 있었던 명문대가 아닌 일반대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 예일 경

제학자 잭커리 블리머 교수의 연구다.

캘리포니아의 유명 최고대학의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은 적어졌으며 대신 지역 공립대학이나 커뮤니티칼리지에 쏟아져 들었다. 그 결과로 히스패닉 고교졸업생 중 캘리포니아 대학에 지원했던 학생들은 어퍼머티브액션 금지 이전에 지원했던 학생들에 비해 소득이 5% 떨어졌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 되면 다음 초치는?

이번 판결은 내년 정도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그러타 판결을 뒤집는다 해도 대학은 이미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금지된 주에서는 두가지 전략이 대두됐다.

텍사스에서는 1996년 어퍼머티브 액션을 연방법원이 금지한 후 텍사스주는 고등학교 상위 10% 졸업생들은 텍사스 주립대 어느 캠퍼스에든 합격을 보장했었다.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 지역사회 의 인구구성데이터를 이용해 블랙과 히스패닉 인구가 높은 지역구의 우편번호의 학생들의 입학허용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어떤 대학도 이러한 입학 시스템 운영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경우는 없었다.

공정입학을위한학생그룹(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의 진정한 의도는?

백인 보수단체인 SFFA는 하버드 입학에서 아시안들이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요청하지 않은 싸움을 아시안을 대신해

싸워주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다.

SFFA가 목표하는 진정한 의도는 어퍼머티브액션의 철폐다. 즉 대입 정책에서 인종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color blind)함으로써 백인 학생들의 입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소송에서 난데없이 아시안이 불려나가 그 목표의 수단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0월 31일 오전 10시에 UNC 소송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에서 변론했던 데이비드 히노호사 변호사는 소수민족언론서비스(EMS)가 앞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역사를 완전히 백인의 것으로 만들고, 과거에 누렸던 특권을 오늘날 다시 되살리려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물론 아시안들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입학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전체 인구의 7%인 아시안학생들이 하버드 입학비율에서는 24%를 차지하고 있다. 백인은 전체 인구의 59%이지만 40%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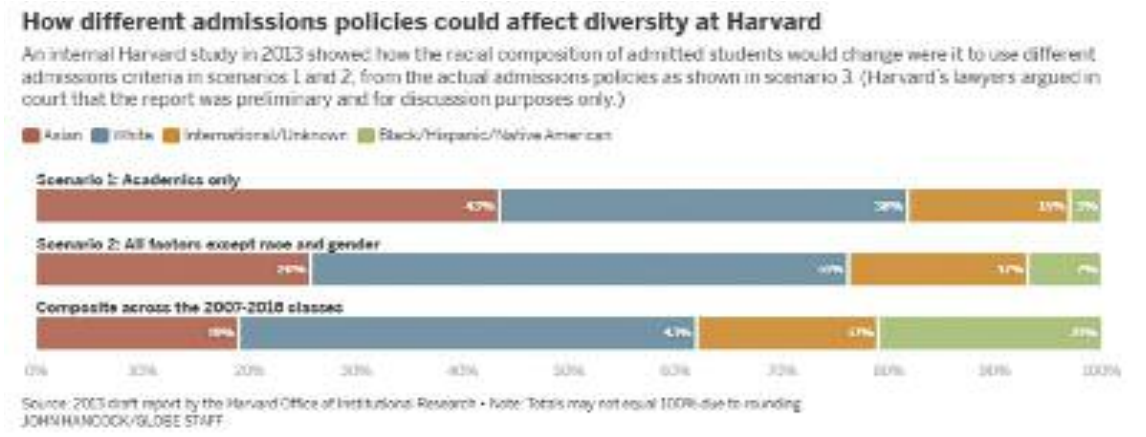
실제로 백인의 입학비율은 훨씬 더 낮아야 하지만 레거시(Legacy+) 우대정책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입학했다. SFFA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6년간 43%의 백인학생들이 레거시 입학으로 합격했다. 이들 중에 레거시 점수 플러스가 없었다만

25%만 합격이 가능했다. 이는 1,600여 백인 학생들이 성적이 열등함에도 우대로 입학했다는 의미다. 백인 학생들은 어퍼머티브 액션 대신 레거시라는 이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소송이 어퍼머티브 폐지로 결론날 경우 아시안은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흑인과 라티노계의 원망을 사게 될 것이 분명하다. 과거 LA 폭동 당시 흑인을 폭행해서 죽인 것은 백인 경찰이었지만 흑인의 분노는 한인들에게 쏟아졌다.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어퍼머티브 액션은 미국사회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시안들은 어퍼머티브액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것이 폐지되어도 레거시 및 체육 특례 입학이 있는 한 아시안들에게 크게 유리해지지도 않는다. 보수 우위 대법원의 판결은 아시안의 여론으로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 다만 SFFA의 주장에 부화뇌동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SFFA 측에 증인으로 나선 아시안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다. 그 반대편의 증인으로 선 하버드생 샬리 첸은 “영어가 서툰 노동계급 이민자의 딸로 태어나 하버드대의 인종을 고려한 입시정책이 없었다면 자신은 하버드의 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 이라고 증언했다.



##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2
3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www.bostonkorea.com

# 파월 "이르면 12월 금리인상 속도 늦춰...인하 고려는 시기상조"

### 회견서 "최종금리, 지난번 예상보다 높아질 것...갈 길 멀다" "美경제 연착륙 여전히 가능하나 지난 1년간 길 더 좁아졌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일(현지시간) 예상대로 오는 12월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금리인하 전환 고려는 "매우 시기상조"라며 매과(통화긴축 선호)적 면모도 동시에 보였다.

파월 의장은 이날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 속도를 줄일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FOMC) 회의가 될 수도, 아니면 그다음 회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이날 사상 초유의 4연속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도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여지를 열어놨다.

따라서 파월 의장의 언급은 이르면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인상폭을 0.5%포인트 이하로 낮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등으로 이미 알려진 속도 조절 방침보다 파월 의장의 다른 발언들에 더 주목했다.

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지난 9월 FOMC 이후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를 고려할 때 "최종금리 수준은 지난번 예상한 것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기준금리가 9월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낸 도표)에서 제시된 4.6%를 넘어 5%에 육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파월 의장은 "금리인상 중단에 대해 생각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라면서 "우리는 갈 길이 멀다"며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오래 유지할 방침임을 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역사는 너무 이르게 정책을 완화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한다"며 "(물가안정) 임무가 끝날 때까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준금리가 이미 경제성장을 둔화하는 '제약적 수준'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금리인상 속도에 관한 질문은 덜 중요해졌다"며 이제는 최종금리가 얼마나 될지, 높은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격적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경제성장이 추세 이하로 내려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경기둔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아직도 예상보다 높고 노동시장은 과열된 상태라고 진단한 뒤 "연준이 충분히(통화정책을) 긴축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미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도 있다고 파월 의장은 인정했다.

그는 연착륙이 여전히 가능하기는 하지만 "더욱 어려워졌고 지난 1년간(연착륙으로 가는) 길은 좁아졌다"고 우려했다.

firstcircle@yna.co.kr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9월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낸 도표)에서 제시된 4.6%를 넘어 5%에 육박할 가능성을 시사해 연준의 금리완화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 집 장만 힘들어진 미국...첫 주택 구매자 평균연령 역대 최고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 격변이 발생한 미국 주택시장에서 소비자들 집 장만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전미부동산중개업협회(NAR) 자료를 인용해 올해 미국에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36세로, 통계 조사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생애 첫 주택구매자의 평균연령(33세)에서 3세가 늘어난 수치다.

또한 전체 주택 구매자 중에서 생

애 첫 주택구매자의 비율은 26%로 감소했다.

역시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예년 평균은 40% 정도다.

NAR은 이 같은 상황은 주택가격이 오르고 매물도 줄어드는 등 수요자 간 경쟁이 격화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또한 학자금대출 반환 부담 등 젊은 층의 경제 사정이 악화한 것도 이유로 꼽혔다.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했지만,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때문에 거래 자체가 감소하는 분위기다.

주택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인종적 다양성도 20여 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올해 주택 구매자 중에서 흑인의 비율은 3%로 지난해의 절반에 불과했다. 아시아계의 비율도 지난해 6%에서 올해 2%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백인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6%포인트 증가한 88%를 기록했다.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 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 공화, 새 승부처 아시아계 집중공략... '인종갈등 조장' 논란도

아시아계, 투표 참여 큰 폭 증가...공화, 일부 후보 당선에 고무 아시아계 '불만 파고들기 전략'... "분열·인종차별적 언어도 사용"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중요한 유권자층으로 부상한 아시아계 미국인에 공을 들이면서 인종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전략을 활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이 아시아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점점 더 많이 투표소를 찾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긴 2020년 대선에서 모든 인종의 투표율이 2016년 대선 보다 증가했는데 특히 아시아계의 투표율은 62%(2016년 48%)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대선 승부처인 조지아주에서는 아시아계 투표율이 2016년 대비 91%나 증가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당시 출구조사에서 아시아계의 지지율은 바이든 63%, 트럼프 31%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시아계가 민주당과 더 가까워 보이지만 WP는 공화당이 갈수록 아시아계를 지지층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2년 전 대선 출구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긴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아시아계의 지지는 2016년 대비 7%포인트 증가했다.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 45지구)과 영 김(캘리포니아 40지구) 의원이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카운티 지역구에서 당선된 것도 공화당을 고무시켰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주민의 3분의 1이 아시아계인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이 진보 성향의 교육위원회와 범죄에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을 소환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화당이 아시아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활용한 일부 전략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직 고문인 스테판 밀러가 이끄는 보수 비영리 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은 캘리포니아 등지의 아시아계 유권자에게 좌파가 백인과 아시아계를 상대로 광범위한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 단체는 '공정'은 특정 그룹을 일 자리, 대학 입학, 정부 혜택에서 배제



국회 미셸 박 스틸 연방 하원의원(좌)과 영 김 연방 하원의원

하기 위한 단어라는 주장도 했다. 소수인종 배려입학 등 흑인과 라틴계가 주로 혜택을 보는 제도에 대한 아시아계의 불만을 부추기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런 전략에 대해 진보 성향의 단체인 '아시아계 미국인 파워 네트워크'의 나디아 벨킨 사무국장은 교육과 안전을 강조하는 공화당의 메시지가 "아시아계 사회를 끌어당기고 있다"면서도 "공화당은 아시아계의 환심을 얻기 위해 매우 분열적이고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 의원의 선거 전략도 도마 위에 올랐다.

스티 의원은 민주당 경쟁자인 대만계 정치인 제이 첸 후보가 2010년 지역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자 수업' 프로그램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공자학원'을 중국의 선전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다.

WP에 따르면 공화당 측이 유권자에게 발송한 한 메일은 첸 후보를 공산당 교사로 묘사하고 "제이 첸은 우리 아이들의 수업에 중국을 초청했다"고 주장했다.

교실에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을 상징하는 움켜쥔 주먹과 흑인 아이를 동료 학생들 위로 올려세우고 '공정'이라고 적은 표지판도 있었다.

아시아계 대표성을 위해 활동하는 초당파 단체인 '좋은 정부를 위한 아시아계 미국인 정치행동위원회'는 최근 스틸 의원 측의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해 "인종 간 혐오"와 "민족 간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미셸 박 스틸 의원과 영 김 의원의 연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bluekey@yna.co.kr

**THE PRO REALTY GROUP**

# 수잔 부동산

**풍부한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한인 부동산 회사**

## T.339.224.1512

245 First Street Riverview II 18th floor Cambridge, MA02142

**Susan Lee**  
Broker & Principal

susan@proreality.group  
Kakao ID : susan1223

- 1 **탁월한 협상**  
오랜경험과 전문적인 팀워크로 구성
- 2 **바이어, 셀러**  
전문적 지식과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
- 3 **이주자 상담**  
타주 & 한국 투자 상담
- 4 **전문적인 일처리**  
30년 경력 부동산전문 변호사 파트너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 "112→행안부 통보체계 없어"...소방"대통령실·행안부 동시보고"

### "행안부 내부 보고체계 신속하지 않은 측면도...개선 검토" 소방청, 119 신고 녹취 공개 요청엔 "전례 없어"

(서울=연합뉴스) 정이란 **홍지인 한 지훈 기자** =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등 육상사고에 대한 경찰 112 신고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상황실)로 통보되는 체계가 없으며,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사고 발생을 늦게 인지한 이유는 소방청이 대통령실과 행안부에 동시에 보고했으나 행안부의 보고 절차를 거치면서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육상사고에 대한 119 신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받고 있지만, 112 신고를 받는 체계가 구축돼있지 않다"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찰청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112 신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으며, 첫 압사자가 나오기 전 4시간가량 시민들이 112로 11건 신고한 내역은 행안부 상황실에 닿지 않았다는 의미다.

참사 당일 행안부 상황실에 해당 사건이 보고된 건 119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오후 10시 15분으로부터 33분 지난 오후 10시 48분이다.

이후 행안부 상황실은 오후 10시 57분 내부 공무원들에게 1단계 긴급 문자를 발송했으나, 장·차관들에게는 11시 19분 2단계 긴급문자부터 발송됐다.

행안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장관이 문자 발송 대상 목록에서 누락돼있어서 2단계 긴급문자마저도 비서실 직원을 통해 1분 뒤인 11시 20분에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소방 1단계로 전과된 부분을 장·차관까지 보내면 너무 많아서 상황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정보 전달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보다 사건을 먼저 인지한 이유를 묻자 김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소방청 상황실은 사고 발생 38분 뒤인 오후 10시 53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사고 내용을 통보했으며, 국정상황실장은 오후 11시 1분 윤대통령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이일 소방청 119 대응국장은 "소방청이 행안부로 보고할 때 관련 부처에 동시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10시 48분, 대통령실에 10시 53분 사고를 통보했지만, 행안부는 내부 절차를 밟으면서 장관까지 보고가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이태원 사고 관련 소방당국에 들어온 신고가 오후 10시 15분 이전에는 없었다는 질문에 이일 국장은 "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헬러원 인명사고 관련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다.

차 확인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112 신고 녹취록처럼 공개 여

부를 묻자 "공개한 전례도 없고, 수사, 개인의 소송, 감사, 국회 절차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key@yna.co.kr

## "당일 1개 기동대 용산 야간대기...현장 미투입"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저녁, 참사 현장 인근에서 서울청 소속 기동대 1개 부대가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발생 전 시민들의 112 신고가 이어지는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용 가능한 경찰 병력이 있었지만,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10월 29일 경력운 용 계획'에 따르면, 참사 당일 경찰은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 집회 대응을 위해 서울청 소속 기동대 3개 부대를

배치하고,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무하는 야간대기조로 기동대 1개 부대를 배치기로 계획했다.

당시 용산 지역에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4개 단체의 집회·시위가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당초 용산 지역 집회 대응에 배치됐던 서울청 소속 기동대 3개 부대가 광화문 집회 대응에 동원됐고, 대신 경기남부청 소속 기동대 3개 부대가 투입돼 오후 8시까지 용산 지역 집회에 대응했다.

이후에는 야간조로 편성된 서울청 기동대 1개 부대가 광화문 집회 대응을 마치고 녹사평역과 삼각지역 인근에서 대기 근무를 했다.

오후 6시 34분부터 참사 발생 전까지 총 11건의 '압사 우려' 신고가 이어졌지만, 현장에 파견되지 않고 참사 현장 인근에서 대기 근무를 섰셈이다.

같은 날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 지역의 경우 오전 8시부터 2개 기동대가 교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날 서초 지역에 집회나 시위 일정이 없었던 만큼 이태원에 배치할 경찰 인력이 있었는데도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비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NOV. 4th - NOV. 10th, 2022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 Rice Balls Reinvented: Golden Brown Kimcheesy Arancini

Taste gold with these Kimchi Arancini rice balls, inspired by the traditional Italian deep-fried staple. 김치를 이용한 이탈리아 + 한국 퓨전요리, 김치 아란치니를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 SUMMER ENDS SAVING STARTS

PLEASE TURN BACK YOUR CLOCKS 1 HOUR ON NOV. 6TH (SUN.) AT 2AM. 11월 6일 (일요일) 새벽 2시부터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려놓으세요!

<p><b>Sweet Potato</b> 고구마 LB <b>\$2.49</b></p>	<p><b>Cilantro</b> 실란트로 EA <b>\$1.29</b></p>	<p><b>King Oyster Mushroom</b> 한국산 새송이 버섯 PRODUCT OF KOREA 10.58 OZ/PKG <b>\$2.99</b></p>	<p><b>Seedless Green Grape</b> 씨없는 청포도 LB <b>\$1.99</b></p>	<p><b>California Persimmon</b> 캘리포니아 단감 BOX <b>\$24.99</b></p>
<p><b>White Cabbage</b> 화이트 캐비지 LB <b>\$0.59</b></p>	<p><b>Seedless Red Grape</b> 씨없는 적포도 LB <b>\$1.99</b></p>	<p><b>Hass Avocado</b> 헤스 아보카도 EA <b>\$0.99</b></p>	<p><b>SOONYEOWON Tofu</b> 수녀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b>\$1.49</b></p>	<p><b>Fuji Apple</b> 후지사과 LB <b>\$1.99</b></p>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b>Fresh Beef Heel Meat</b> 생 소 사태 LB <b>\$8.99</b></p>	<p><b>Fresh Pork CT Butt Steak</b>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SLICED/LB <b>\$7.99</b></p>
<p><b>Fresh Pork Single Belly</b>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b>\$7.99</b></p>	<p><b>Frozen Cornish Hen</b> 냉동 영계 LB <b>\$2.99</b></p>
<p><b>Marinated Pork Bulgogi</b> 양념 돼지 불고기 LB <b>\$6.99</b></p>	<p><b>SEOUL SOONDAE Dangooni</b> Korean Brand Link 서울순대 냉동 당수니 순대 FROZEN 1.5 LB/PKG <b>\$9.99</b></p>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b>Frozen Head-on Shrimp</b> 머리새우 30-40'S/LB <b>\$5.99</b></p>	<p><b>TONGTOMBAY Frozen Small Octopus</b> 주꾸미 16-25'S/LB <b>\$6.99</b></p>
<p><b>HWAWOODANG Frozen The Original Gunsan Squid Seafood Stew</b> 화우당 군산 통오징어 해물탕 42.3 OZ/PKG <b>\$14.99</b></p>	<p><b>Silver Pomfret</b> 은병어 300-400'S/LB <b>\$9.99</b></p>
<p><b>Headless Tiger Shrimp</b> 머리없는 타이거새우 21-25'S/LB <b>\$10.99</b></p>	<p><b>Fresh Salmon Steak</b> 연어 스테이크 LB <b>\$7.99</b></p>

### SMART CARD MEMBER ONLY

<p><b>ASIAN BEST Jasmine Rice</b> 아시아 베스트 자스민쌀 25 LB <b>\$19.99</b></p>	<p><b>NONGSHIM SHIN RAMYUN</b> 농심 신라면 4.2 OZ X 4 EA/PKG <b>\$3.99</b></p>
<p><b>PULMUONE Dried Seaweed</b> 풀무원 진국미역 3.52 OZ <b>\$1.99</b></p>	<p><b>SPAM 25% Less Sodium/Classic/Lite</b> 스팸 25% Less/클래식/라이트 12 OZ <b>\$2.99</b></p>

<p><b>ORGANIC FARM Premium Organic Haiga Mai Rice</b> 유기농장 유기농 안심 배아미 15 LB <b>\$39.99</b></p>	<p><b>NONGSHIM Bowl Noodle Soup Hot &amp; Spicy/Kimchi</b> 농심 육개장/김치 사발면 3.03 OZ X 12 EA/BOX <b>\$13.99</b></p>	<p><b>HAIO Beef Short Rib/Bulgogi Marinade</b> 해오름 소갈비/소불고기 양념 1.85 LB <b>\$4.99</b></p>	<p><b>KIKENI Corndogs</b> 키큰아이 핫도그 <b>\$6.99</b></p>	<p><b>HAIO Frozen Seasoned Pollack Roe</b> 해오름 명란젓 2.2 LB <b>\$22.99</b></p>
<p><b>THE HOUSE MANDU Pork&amp;Vegetable Dumpling</b> 그 집 만두 참만두 1.65 LB <b>\$6.99</b></p>	<p><b>PULMUONE Korean Style Noodles for Kalguksoo</b> 풀무원 생칼국수면 2.31 LB <b>\$5.99</b></p>	<p><b>THE FARMER'S HEN Free Range 18 Eggs Grade A Large</b> 더 파머스 헨 방목형 황란 (대) 18 CNT/PKG <b>\$4.99</b></p>	<p><b>GREENLAND Rice Paper</b> 그린랜드 쌀종이 22 CM/12 OZ <b>\$2.49</b></p>	<p><b>GOMPYO Co-Brand Wheat Flour</b> 곰표 Co-Brand 밀가루 5.5 LB <b>\$3.99</b></p>
<p><b>HAITAI Matdongsan Peanut Crunch</b> 해태 땅콩산 10.58 OZ <b>\$3.99</b></p>	<p><b>MAEIL Biofeel Yogurt Drink</b> 매일 바이오필 요구르트 2.13 FL OZ X 25 EA/PKG <b>\$5.99</b></p>	<p><b>KOTO Bone China Square Bowl</b> 코토 분차이나 사각 면기 <del>\$7.49</del> <b>\$4.99</b> 7 INCH EA</p>	<p><b>ZIPBOB Food Container</b> 집밥죽 저장용기 500 ML X 4 EA <del>\$5.99</del> <b>\$3.99</b> SET</p>	<p><b>KAKAO FRIENDS Bath Tissue</b> 카카오 프렌즈 휴지 12 ROLLS <del>\$14.99</del> <b>\$11.99</b> PKG</p>

**JINGA SIDE DISHES**  
Want authentic Korean? Always ready to eat Always the highest quality!

한국전통의 맛이 그리울 때는 진가 모듬반찬을 드셔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01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장 나원태**  
617.642.3156  
President  
won@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제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Steve Kwon**  
508.326.6285  
Director of HR/Customer relationship  
Stev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Song**  
413.313.4165  
Manager of Hadley Branch  
kathysong2019@gmail.com



**준한**  
617.586.9192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jha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Lexington Branch Manager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Lexington Branch Manager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 PREMIER REALTY GROUP



**크리스 최**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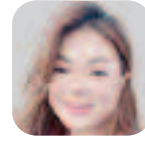
**지나 최**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주**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마샤 송**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choi@gmail.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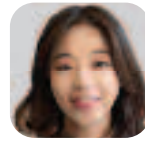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임현미**  
781.690.4309  
hyunmi@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wang1@gmail.com



**레이첼 김**  
617.852.7485  
rachelkim@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gu2022@bostonpremierrealty.com



**Jason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Henry Nguyen**  
617.803.83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8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Lu Jiang**  
240.449.0117  
jianglubox@gmail.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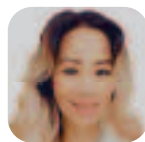
**Samantha Cordon**  
857.333.2088  
samanthajcordon@gmail.com



**Lili Wang**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24.5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Benjamin Fiorentino**  
617.775.9583  
ben@bostonpremierrealty.com



**Sasha Shapiro**  
617.610.9796  
alex@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6  
alex@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현**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WWW.BOSTONPRG.COM**  
Licensed in MA, RI, CT, NY and GA



# PREMIER WORKS

좋은 사람들이 우리집처럼 여기고 정성껏 일하는 PREMIER WORKS. 각각 다른 레벨의 일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공정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 홈 리노베이션, 홈 익스텐션, 핸디맨잡, 배관, 전기, 난방, 커머셜/식당 디자인 시공.

“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 job well done. The floors look terrific! I know the project was a challenging one, but I'm happy to say you and your team more than met the challenge. In addition, a concern I've had with contractors is not following up with loose ends. I'm happy to report all follow up requests wer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In short, I highly recommend and will continue to use Premier Works for all of my flooring needs!

Sincerely, Mr. M. Malden, MA ”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Property Management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건물을 관리해 드립니다. 건축가, 부동산, 건축시공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 합니다. All size condo, single family, multi family, commercial, Hands Free, All in One Service

## 렌트비 관리, 유지관리, 테넌트관리



**Premier Realty Group**  
617.515.1162  
info@bostonpremierrealty.com

## WEEKLY SPECIAL



# 10 Nouvelle Way

Listed Yesterday,  
Offer Accepted Today !!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 UNMATCHED PRICE!

**큐원 홈메이드**

STARTING NOVEMBER 3RD, 2022 (LIMITED SUPPLY)

## 찰호떡믹스 발효없이 바로 구워먹는

Q1 CHALHODDEOK KOREAN PANCAKE MIX  
14.1 OZ + 14.1 OZ/PKG

**\$6.99** 호떡믹스가 TWO PACKS ARE IN THE 한팩 더! PACKAGE

**호떡누르개 무료 증정!**  
FREE HODDEOK PRESSING TOOL



1호떡이더  
패키지 안에 들어있어요



NOVEMBER 3RD-NOVEMBER 10TH, 2022



## SUHYUP Cleaned Squid 수협 **촉촉 오징어**

질 좋은 수협 오징어를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에 활용해보세요~

**초특가**  
SPECIAL PRICE!

**\$5.99**

2 PCS/PKG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간단하고 신속한

주택 융자

안녕하십니까 **켈리 김** 입니다.  
주택에 관한 모든 융자들 도와 드립니다.

낮은 이자율 · 캐쉬아웃  
개인 소득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ocial Security번호가 필요 없는 프로그램  
ITIN 번호만 필요한 프로그램  
바로 연락 주세요.

“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거의 포기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때 다른 회사에서 진행한지 5개월이 넘었어도 도저히 끝이  
안보였거든요 그런데 열흘도 안되서 모든게 거의 결정되고 시작한지  
한달여만에 이사했으니 정말 빠른진행과 더불어 너무 친절하고  
정확하게 도와주신 Kellie Kim Thielen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다시 드립니다!

- Hun Pyo C.

”



**켈리 김**

한국어, 영어 가능

주택대출 담당 - nmls #2027241

CT, FL, MA, ME, NJ, NH, RI, TX 라이선스.

이메일: [kkimthielen@radiusgrp.com](mailto:kkimthielen@radiusgrp.com)

전화: 617.733.5014

한국어 웹사이트: [info.radiusgrp.com/ko/kthielen](http://info.radiusgrp.com/ko/kthielen)

English Website: [www.radiusgrp.com/kelliekimthielen](http://www.radiusgrp.com/kelliekimthielen)



600 Longwater Drive, Suite 107, Norwell, MA 02061

Kellie Kim Thielen, Loan Officer - NMLS # 2027241; Licensed in CT, MA, ME, NH, NJ, RI, TX. Employed by radius financial group inc., NMLS #1846., CT 17213, FL Lender/Servicer MLD309/MLD1562; MA Lender/Broker MC1846 ME SLM6596; NH 7986-MB; NJ Residential Mortgage Lender License and RMLA-Licensed Mortgage Servicer Registration 1846; RI Licensed Lender/Broker 20031544LL/20183611LB; TX SML Mortgage Banker Registration Equal Housing Lender.

이 광고는 한국연립은행의  
정부보증 수속을 지원받아  
발사되었습니다.

한국연립은행  
Korea First Bank

오후 5:30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인 김규연 님이 제안한 광고입니다. - 2021 광고광고 공모전 수상작

**성안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Catholic Church in Boston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성 안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 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교사 / 학생 모집**  
[교사 모집]  
미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어를 가르칠 선생님을 모집 합니다.  
[2022-2023 등록 안내]  
등록금 330불+등록비 20불  
(한 자녀 330불, 두 자녀 640불, 세 자녀 950불)  
\*8월 14일까지 등록시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문의: 교장 전화: 617-610-2743  
이메일: BostonCatholicKoreanSchool@gmail.com

45 Ash St. Newton MA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를 노려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CHOISIGNS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ing,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mchae@dependableusa.com  
web: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 ‘가짜뉴스’는 범죄입니다

양의 가면을 뒤집어서도 늑대는 늑대일 뿐입니다.  
뉴스의 형식을 빌려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09) 은퇴 준비 첫걸음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은퇴 후 편안한 삶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이민 생활이 바쁘기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머뭇거린다. 은퇴 준비 기본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자그마한 돈이라고 꾸준히 투자(Investing)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라는 충고를 수없이 들었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수입 일부를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은퇴 준비의 첫걸음이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한달에 \$500씩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해 왔다. 한 달 \$500 투자가 세월이 지나서 얼마나 큰 돈으로 불어나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난 30년(1992-2021) 동안 꾸준히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현재 \$130만 불로 불어난다. 부부가 함께했다면 \$260만 불로 백만장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식시장이란 우리에게 익숙한 아마존, 애플,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기업 500대 기업을 하나로 묶은 투자 종목이다.

\*신용카드 빚(Debt)의 이자율은 매우 높

다. 이자율이 복리로 계산되기에 한 마디로 '최악'이다. 이것이 돈을 잃는 지름길이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당연히 투자할 수 없고 빚만 늘어날 뿐이다.

\*신용카드는 필요하다. 미국에서 신용(Credit) 점수가 낮으면 주택융자금(Mortgage), 자동차, 학자금 융자, 등을 얻을 때 높은 이자율이 부과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매달 100%씩 갚아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신용카드 대금, 모기지, 여러 공과금, 등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동으로 지급하면 벌과금 등을 피할 수 있으며 마음도 편해진다.

\*비상금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돈이 급하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하는 돈은 최소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돈을 투자해야 한다.

\*직장에서 은퇴자금으로 투자하면 회사가 투자한 금액에 따라 매칭(Matching)해 준다. 이것이 진짜로 공짜 돈(Free Money)

이다. 생활이 어려워도 회사가 매칭해 주는 만큼은 꼭 투자해야 한다.

\*직장인이 봉급이 오르면 더 큰 집으로 새 자동차 등을 구매한다. 그래서 생활이 항상 빠듯하다. 봉급이 오르면 일정 비율로 투자도 늘어나야 한다. 새로운 휴대전화, TV, 자동차, 명품 가방, 등으로 순간의 기쁨을 맛볼 수는 있지만,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은퇴 후 2,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노후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하루하루가 어려운 생활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충고한다. 이것은 성인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돈을 버는 대로 써버리는 친구와 가깝게 지내다 보면 본인도 물들어 간다. 검소하게 낙관적으로 사는 친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재정(Personal Finance)에 관한 책을 읽어야 한다. 인터넷 기사 등은 잠깐의 시간으로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책을 쓴다는 것은 많은 생각과 시간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다. 책 한 권 보는 것이 인터넷 등에 떠 있는

기사 몇 배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미래를 너무 생각하다 보면 현재를 잠시 잊어버린다. 현재 나의 순자산(Assets-Liabilities)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저축이나 투자에 더욱 신경 쓸 수 있다.

\*세금 보고를 한 번은 직접 작성해 봐야 한다. 요즘 터보텍스(Turbo Tax)를 이용하면 손쉽게 실행해 볼 수 있다. 남에게 의존하면 어떻게 세금을 합법적으로 적게 내고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주인이 모든 사업 전체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매니저(Manager)를 고용해도 비즈니스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 결정을 하기 전 은퇴 후 2, 30년 편안한 노후를 위한 은퇴 자금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해 봐야 한다. 은퇴한다고 생활비가 적어질 것으로 생각하면 매우 위험하다. 은퇴하면 24시간 돈을 소비할 수 있다. 여행, 의료비, 등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7세 풍월주風月主 흠돌欵突(3)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김흠돌의 출생연도와 풍월주가 된 연도 및 풍월주가 된 후 '협약한 마음으로 간사한 꾀'를 부려 무리를 더욱 굳게 하려는 계책이 화랑세기에 전한다.

[**〈흠돌은 정해년丁亥年 생이고 병진년丙辰年에 화랑이 되었다〉**

신광의 형 진광眞光은 곧 흠돌의 처였다. 그러므로 흠돌은 유신공의 공적을 핑계대서 말했으나 마음속으로는 그 무리를 굳게 하려 했다. 문명후는 거의 기울었으나 태자가 받아들이지 않아 흠돌의 계책은 마침내 깨졌다. 진공眞功은 풍월주의 지위에 5년간 있다가 흠돌에게 물려주었다. 그때 태손太孫 소명전군昭明殿君이 이미 태어났고, 무열제武烈帝는 자의 慈義의 현숙함을 매우 사랑했다. 흠돌은 감히 다시는 그 계책을 말하지 못했다. 이에 보통궁寶龍宮에 정성을 바치고, 그 딸을 순원順元의 첩으로 들일 것을 청했다. 보통궁은 속임수를 두려워하여 좋은 말로 거절했다. 흠돌은 다시 사람을 시켜 야명궁夜明宮과 나의 아버지 오 기공에게 정성을 바치고 전에 저지른 악행을

덮으려 했다.

그때에 야명 또한 인명전군仁明殿君을 낳았는데 준수하고 용봉龍鳳의 모습이 있었다. 태자가 매우 사랑했다. 흠돌이 스스로 말하여 인명仁明의 신하가 되기를 원했다. 야명이 부득이 받아들였다. 그때 순원공이 흠돌에게 속아, 비밀히 흠돌의 딸과 사통을 했다. 그러므로 흠돌을 위하여 야명을 설득한 것이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흠돌은 627년(정해년)에 태어나서 656년에 풍월주가 되었다. 26세 풍월주는 진공으로 그는 5년간 그 위치에 있었다. 위 인용문에 등장하는 '무리를 굳게 하려', '흠돌의 계책', '전에 저지른 악행' 등은 김흠돌이 풍월주에 오르면서 장인(외숙부가 되기도 한다)인 김유신을 핑계로 화랑도 조직내에서 가야파가 모든 낭정을 장악하려했던 계략을 말한다. 408)

문명후 문회는 김유신의 동생으로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부인이다. 그래서 조카 흠돌의 간특함에 속아서 그의 계획(계략)을 지원하기로 하였지만, 화랑의 내부를 잘 인지하고 있었던 태자 김법민은 흠돌의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무렵 태자 김법민과 자의의 장남 소명이 태어났다. 태손太孫 소명전군의 출생연도의 기록은 없는데, 김법민이 문무왕으로 즉위한 661년 이전에 출생하였으며(655년

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무왕 즉위와 함께 태자로 책봉되었고, 그의 동생 정명(후일 신문왕)이 665년에 태자에 책봉된 것으로 보아 동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흠돌은 가야파의 '낭정장악' 계획이 실패로 끝나고, 무엇보다 자신의 첩으로 들어왔던 자의慈義가 태자의 비가 되어 아들을 낳았으며, 또한 자의의 어머니 보통도 무열왕의 총애를 입고 아들(당원전군)을 출산했으니, 좁아진 입지를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순원順元에게 접근하였다.

21세 풍월주를 역임한 김선품은 진흥왕의 적손인데,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병을 얻어 귀국하여 그만 35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 그는 부인 보통과 함께 3녀 1남을 두었다. 그들이 장녀 자의와 차녀 운명雲明과 삼녀 야명夜明이며, 아들이 순원이다. 409)

흠돌은 자신의 딸을 순원에게 첩으로 주면서 '원세의 줄'을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간특함을 알고 있고 보통은 그를 멀리하였다. 이에 흠돌은 야명궁주에게 붙어서 야명의 아들 인명전군의 신하가 되기를 청했다. 그는 후일 681년, 신문왕 즉위년에 인명을 앞세워 난을 일으켰다가 혈족이 화를 입었다. 그때 자의태후와 신문왕은 조카/이복동생인 인명도 함께 없었다.

408) 김유신은 첫 부인 영모와 함께 딸(진광, 신광, 작광, 영광) 넷과 아들(삼광) 하나를 낳

았다(삼국사기의 기록과는 다르지만, 삼국사기와 화랑세기를 교차 고증하여 얻은 결론이다). 장녀 진광이 흠돌의 아내가 되었고, 흠돌의 부모는 김달복과 정희(김유신의 동생)이다.

409) 김선품의 부모는 구륵과 보화공주이다. 구륵의 부모는 진흥왕과 사도왕후이고, 보화의 부모는 진평왕과 미실이다. 자의는 제30대 문무왕의 왕비이며 제31대 신문왕의 어머니이다. 운명은 28세 풍월주 김오기에게 출가하여 화랑세기의 저자 김대문을 낳았다. 야명은 문무왕의 후궁이 되어 인명전군을 낳았다. 인명은 681년 김흠돌이 난을 일으킬 때 주군으로 세워졌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 순원은 698년(효소왕7년)에 대야찬(5등급)으로 시중에 올랐다. 하지만 699년 이찬(2등급) 경영慶永의 난에 연루되어 파직당했다. 그 후 언제 중앙정계 복귀한 기록은 없지만 706년 이전에 중앙정계에 복귀한 것으로 본다(황복사금동 사리함기에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 제33대 성덕왕의 후비 소덕왕후가 순원의 딸이다. 소덕왕후가 낳은 장남 승경承慶이 제34대 효성왕이고, 차남 현영憲英이 제35대 경덕왕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CUCKOO

모두가 기다려온 쇼핑시즌!

쿠쿠렌탈 **블랙**

**프라이데이**  
sale

기간 | 10.28.2022 - 11.28.2022    조건 | 기간 내 주문 & 11월 내 설치

최대 ~ **50%**

쿠쿠제품  
바로 보러가기!!



- 공기청정기, 비데, 버블클렌저 2/4/6/8대짜 구매 시 **50% 할인**
- 복수 구매/계약 고객 대상 LED마스크 **50% 특별 할인**
- 전 제품 일시불 구매 시 **10% 즉시 할인**



안마의자 구매 시  
최대 \$2,000 할인



안마의자 렌탈 시  
다운페이 \$500 면제



헷드라이얼 구매 시  
\$300 할인

\* 수량별 푸짐한 사은품까지! \*

\$590  
상당

3대 렌탈/구매 시  
쿠쿠 IH 압력밥솥 증정

\*프리미엄 제품 1대 포함 필수  
CRP-JHSR0609F | 5인용

\$260  
상당

2대 렌탈/구매 시  
쿠쿠 압력밥솥 증정

CRP-RT0505FW | 6인용

\$150  
상당

1대 렌탈/구매 시  
쿠쿠 제빵기 증정

CBM-AAS1015

Cuckoo Boston 617-879-2725

일부 혜택은 중복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혜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에 문의하세요.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딩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조기 소진 시 동일 가구/타종 사은품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사은품 관련 구매/렌탈 문의 시 추가 구매의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 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프리미엄 제품 : 상수기 MN모델 위, 전자렌지 공기 청정기 D.F모델  
LED 마스크 프리미엄  
· 프로모션 대상 제외 제품 : 제빙기  
· 수량별 사은품 재택 제외 제품 : 헷드라이얼

쿠쿠 제품 구입 및 서비스 문의 | 888.700.0425    쿠쿠 공식 웹사이트 [cuckoorental.com](http://cuckoorental.com) | [cuckooamerica.com](http://cuckooamerica.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C) 929-398-9591



# 자진출국 Voluntary Departure

자진 출국은 추방 명령이 내려질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출국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구제의 한 형태입니다. 자진 출국은 추방 절차 중에 이민 심판관에 의해 허가될 수 있으며, 추방 절차 이외의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의 다른 이민 기관에 의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자진 출국의 이점으로는 추방 명령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민 심판관이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에게 자진 출국을 허가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자진 출국 명령에 따라 출국하도록 허용된 시간 내에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다면, 그 사람의 기록에는 추방 명령이 남지 않으며 추방 명령이 내려질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추방 명령의 불이익의 한 예로는 추방 이후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심판관의 자진 출국 명령에 따라 기한 내에 미국을 떠나면 10년간 미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

가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추방 명령의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 자진 출국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진 출국 신청 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여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상황들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자진 출국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여권이나 여행 서류 등을 제출하여 미국을 떠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진 출국 신청 조건은 추방 절차의 진행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추방 절차가 막 시작했을 때와 추방 절차가 끝나갈 때 상황에서의 자진 출국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자격 여부를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민 심판관의 자진 출국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된 시간 내에 미국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미국을 출국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자진 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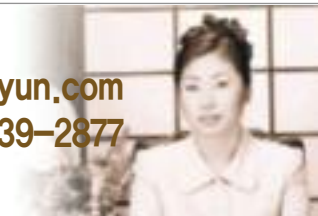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진 출국 허용 시간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다양한 이민 구제 신청이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용 시간 내에 출국하지 않은 상

황에 놓인 사람은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여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월 6일 - 11월 12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확 트이고 드넓은 광야가</b></p> <p>● 운수: 힘들게 산을 넘고 이제는 확 트이고 드넓은 광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근심·걱정을 모두 사라지게 해주는 일이 있겠습니다. ● 금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원하던 돈도 들어오면서 숨통이 트입니다. ● 애정: 반갑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미혼남녀는 일생을 같이할 배필과의 인연이 이어지는 때이니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8, 11일 길일, 10, 12일 주의.</p>	<p><b>소띠   단호히 결정하여</b></p> <p>● 운수: 원하는 일을 더는 미루지 말고 단호히 결정하여 시작하도록 하세요. 투자하거나 변화나 변동을 시도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 금전: 기다리는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미루고 지체할수록 손해가 될 것입니다. ● 애정: 이성 간에 있어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로부터 프러포즈도 받게 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7, 12일 길일, 8, 11일 주의.</p>	<p><b>범띠   여유 있는 마음을</b></p> <p>● 운수: 하고자 하는 의욕과 활동의 영역을 넓혀보려는 생각이 있지만, 몸과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태입니다. ● 금전: 가슴을 활짝 열고 여유 있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응축하면 그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 애정: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원가 결심까지 하기에는 자기 자신만이 느끼는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0, 11일 길일, 8, 12일 주의.</p>
<p><b>토끼띠   이정표를 찾도록</b></p> <p>● 운수: 살아가는 데에 길이 많지만 수많은 길 중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잘 파악해서 이정표를 찾도록 하세요. ● 금전: 지난날에 뿌렸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니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것을 구하면 큰 것을 얻게 되겠습니다. ● 애정: 사랑이란 진정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6, 9일 길일, 7, 8일 주의.</p>	<p><b>용띠   현실적인 판단이</b></p> <p>● 운수: 능력 있는 사람에게 협조를 구해야 큰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단,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 금전: 여러 면에서 좋아지니 금전운이 갈라지고 볼 수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수입이 나아집니다. ● 애정: 애정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고요. 인간관계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7, 9일 길일, 6, 8일 주의.</p>	<p><b>뱀띠   냉철한 눈으로</b></p> <p>● 운수: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냉철한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분명하게 생각해 보세요. ● 금전: 꼭 들어올 돈은 미루어지고 급하게 쓸 일은 생기게 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이니 지출에 신중 쓰세요. ● 애정: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은 상태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하세요. 01, 89, 77, 65, 53, 41년생은 8, 11일 길일, 6, 9일 주의.</p>
<p><b>말띠   깊은 관심이 필요한</b></p> <p>● 운수: 예상치 않은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주위를 잘 살피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 금전: 항상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무리한 투자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로서로 바로 알지 못하면 상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9, 12일 길일, 7, 10일 주의.</p>	<p><b>양띠   땅을 파다가 금을 얻는</b></p> <p>● 운수: 외유내강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인심도 얻고 귀인의 협조를 얻게 됩니다. ● 금전: 땅을 파다가 금을 얻는 것과 같이 뜻밖의 상황에서 금전운이 따라옵니다.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 애정: 삶의 즐거움이나 가치는 자신이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 때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6, 10일 길일, 7, 8일 주의.</p>	<p><b>원숭이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b></p> <p>● 운수: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남보다 앞서기보다는 뒤를 따르는 형식을 취하면 무난하게 넘어갈 것입니다. ● 금전: 여는 때보다도 씹음이 늘어납니다. 좀 더 알뜰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 애정: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란 참으로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화를 녹이고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해보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8, 11일 길일, 9, 12일 주의.</p>
<p><b>닭띠   되로 주고 말로 받는</b></p> <p>● 운수: 평소에 계획한 일을 구체화하여 추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뒷사람에게 칭찬과 찬사를 받게 되고 승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 금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니 수입은 늘고 지출은 적어집니다. ● 애정: 혼자 지내오던 사람은 이상형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아끼지키한 사랑을 속삭일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8, 12일 길일, 7, 10일 주의.</p>	<p><b>개띠   인덕이 따라주어</b></p> <p>● 운수: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덕이 따라줄 것입니다. 실업자는 새 직장을 얻게 됩니다. ● 금전: 나갔던 돈이나 들어와야 하는 돈이 들어오니 주머니가 두둑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도 찾게 됩니다. ● 애정: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9, 10일 길일, 8, 11일 주의.</p>	<p><b>돼지띠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b></p> <p>● 운수: 불쾌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언행에 특별히 신경 쓰면서 대인관계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거래에 있어서 자기 뜻을 분명히 밝혀야 손해가 없습니다. 금전 문제로 부부가 옥신각신하기 쉬우니 내가 먼저 참도록 하세요. ● 애정: 새것을 취하기 위해서 옛것을 가버려 버리고 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평도 매도 다 잃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7, 10일 길일, 9, 12일 주의.</p>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8/12  
코리안 레스토랑 주방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 구합니다.  
쉐프 및 키친 스텝.  
Tel. 617-308-4742

4/15  
로간 공방안에서 딜리버리 일하실 남자직원 모집합니다.  
AF Lounge  
T. 617-787-1667

2/11  
캐시어 및 가발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12/17  
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복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베벌리 타운 피자 가게 직원 급구함**  
캐시어 등 모든 포지션 직원  
경험자 우대, 무 경험자 환영  
영어 가능자 선호  
**617-251-1120**

##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고두심이 밀고 하지원이 끌고... '커튼콜' 시청률 7.2%로 출발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몽클한 가족 서사를 담은 KBS 2TV 월화드라마 '커튼콜'이 7%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0분 방송된 고두심·하지원·강하늘 주연의 '커튼콜'의 첫 회 시청률은 7.2%로 집계됐다.

전날 방송은 6·25 전쟁 피난길의 참담함과 애절함을 고스란히 재현시킨 1950년 12월 흥남부두에서 시작됐다.

피난길에 오른 젊은 시절의 자금순(하지원 분)은 남편에 이어 아들과 연달아 생이별했다. 인천 연안에서 홀로 국밥장사로 사업을 시작한 자금순은 2020년 전국에 대형 체인점을 거느린 낙원호텔 회장이 됐지만,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살날이 길어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노년의 자금순(고두심)이 복에 두고 온 남편과 아들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먹먹한 슬픔을 안겼다. 평생 가슴에 가족을 품고 살아온 자금순이 2002년 제4차 이산가족 상봉 자리에서 아들과 손자를 마주한 장면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한편, 자금순(고두심)의 젊은 시절 미모를 속 빼닮은 막내 손녀 박세연(하지원)은 호텔 총지배인으로 성장했고, 호텔을 매각하려는 큰 오빠 박세준(지승현)과 대립하며 극의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자금순의 오른팔인 정상철(성동일)은 흥신소에서 자금순의 손자 리문성(노상현)의 행적을 찾았는데, 그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문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실망한 정상철은 리문성 대신 연극무대에서 북한군을 연기한 청년 유재현(강하늘)을 찾아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무대에서 연극을 할 생각이 있냐'고 제안하며 이야기의 새로운 물꼬를 텄다.



연극배우들의 안정감 있는 연기는 등장

'커튼콜'은 6·25 전쟁 피난길에서 시작한 서사를 첫 회에 호텔 사업을 하는 재벌의 서열 다름으로 빠르게 전개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자금순의 애절한 가족 서사를 압축적으로 그리면서 자칫 신뢰로 빠질 수 있었던 감정선을 다잡았다.

고두심, 하지원, 성동일, 강하늘 등 연

인물 간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각각의 고유의 캐릭터를 잘 살려냈다. 고두심, 성동일, 강하늘은 북한 역양도 자연스럽게 소화했다.

무엇보다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자금순을 연기한 고두심과, 큰오빠에 맞서 할머니의 유산인 호텔의 가치를 지키려는 박세연 역의 하지원 사이의 연기 호흡이 잘 맞았다.

두 배우는 시대는 달라도 삶의 풍파 속에서 자신이 믿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굳센 여인들을 섬세하게 연기했다.

## 르세라핌, 데뷔 6개월 만에 '빌보드 200' 차트 입성...14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걸그룹 르세라핌이 미니 2집 '안티프래자일'(ANTIFRAGILE)로 데뷔 후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진입했다.

소속사 쏘스뮤직은 1일 미국 빌보드의 공식 트위터를 이용해 르세라핌의 미니2집 '안티프래자일'이 '빌보드 200'에서 14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르세라핌이 지난 5월 첫 미니음반 '피어리스'(FEARLESS)를 발매하며 데뷔한 후 6개월 만에 세운 기록이다.

소속사는 "르세라핌이 K팝 걸그룹 역사상 데뷔 후 가장 짧은 시간 내 '빌보드 200' 차트에 입성한 팀이 됐다"고 소개했다.

음반과 동명의 타이틀곡 '안티프래자일'의 뮤직비디오는 공개된 지 15일 만인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유튜브 조회 수 5천만건을



넘겼다.

이 영상은 공개 직후 한국, 일본,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 등 15개 국가에서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안티프래자일'은 충격을 받을수록 더욱 강해지는 성질을 의미하며, 힘든 시간을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받아들여 성장하겠다는 르세라핌의 각오를 담았다.

hug@yna.co.kr

#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63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전도사 고시'를 마치고 임명식에서...

“하나님, 너무 먼 곳으로 보내지 말아 주세요.”

“세 아이가 아빠를 일찍 여의었으니 엄 마라도 너무 멀리 가지 말게 해주세요!”

남편이 떠나고 한참 후에 마음에 찾아온 생각이었다.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의 갈 길이 어느 길인지를 말이다. 청소년 시절 서원은 아니었지만, 선교에 대한 마음이 늘 차 있었다. 만 21살에 미국에 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다. 큰 염려를 하지 않았다. 내가 전도하면 될 것인데 뭘 그리 걱정할 일이 있을까 했다.

30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다. 생각해 보면 더욱 더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죄스러움이 있다. 우리는 늘 이렇듯 떠나보내고서야 깨달음이 오는 것이다. 곁에 있을 때 무엇보다도 크리스천 아내로서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을 이끌어주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었다. 어려운 사람들 돕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그러

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했고 강박한 마음마져 있었던 사람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2).

이렇듯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썼던 때가 있었다. 남편을 위해서도 그러했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렸어야 했다. 그러나 늘 남편의 영혼 구원에 대해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가지고 시작하고 또 지치지 반복했었다. 결국 내가 아닌 주님 그분이 해주셨다.

하나님은 오래전 마음에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 결혼 후 세 아이를 키우면서 25여 년부터 교회에서 단기 선교가 있을 때마다 참석을 했었다. 20여 년 동안 많은 선교지를 참석하며 배운 것도 많았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운 마음에 있었으며,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떻게 이토록 다

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물음이 수없이 올라왔던 때가 있었다. 나 자신에 대한 물음, 나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 끝없이 차올랐던 때가 있었다.

이렇듯 다시 신학 공부를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더니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고 계셨다. 어디로 도망칠 새 없이 몰아쳐 세우듯 그렇게 신학대학원(상담학) 공부를 시작하게 하셨다. 참으로 놀라운 분이심을 또 고백하고 말았다. 남편을 잃고 힘겨울 틈도 주지 않은 채 말이다. 이제야 알 것 같다. 그것이 사랑이심을 고백하고 말았다. 세상에 한 발 담그고 있는 나를 그 발까지 꺼내어 주셨다. 남편과 함께 어디든 움직인다는 핑계를 대면서 남편 따라 많이 다녔다.

지난 10월 25일 <한미두나미스 예수교장로회 총회> 재41차 가을 정기노회에서 ‘강도사 인허’ 와 ‘전도사 임명식’이 있었다. 감동의 시간이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며 나를 써주

십사 마음을 올려드린 것이다. ‘전도사 고시’ 를 패스하고 ‘전도사 임명식’ 을 앞두고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으로 물음을 드렸다. 진정 이 길이 제 길이 맞느냐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었다. 그 마음 가운데 잠시 요동치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고백과 눈물을 올려드렸다.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분의 왕국에 속해있다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누구나 다 그분의 제자는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함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이요, 이 말은 노예로서 그분을 섬긴다는 뜻이다. 이 말은 또한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한다는 뜻도 되는 것이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_ ‘제자입니까’ 중-)

주님, 진정 당신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복의 근원’ 이길 기도 합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안쓰는 물건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보쌈하듯 데려왔건만 이젠 오히려 팔 걱정이다.

남편을 팝니다. 사정상 급매 합니다. 십여년전 모모 음식점에서 구입했습니다. 한때 야끼던 물건이었으나 유지비도 많이 들고 작동불량과 급히 팔기로 했습니다. 구입 당시 최상 상품인가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서 사용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에 비해 두배입니다. 다행히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애프터 서비스는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 또한 절대 안됩니다. 덤으로 시어머니도 드립니다. ㅁㅁ

어디 남편뿐이랴. 요즘은 안쓰는 잡동사니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식탁달걀, 아니 밥상달걀이다. 출타한 어머니나

아내가 점심을 준비했을 때. 밥상이나 식탁 음식 위에 덮어 놓은데 사용한다. 돌아온 남편이나 아이들은 덮개를 벗기고 식사하는 거다. 요새야 전자렌지가 있을테니 큰 걱정도 없을까. 한편 밥상위엔 간단한 메모도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혼자 받는 밥상은 맛이 덜하다.

식탁보 대신 보자기를 덮어 놓을 수도 있었다. 하긴 보자기 역시 소용이 덜하다. 예외가 있는데, 한국에선 관사님들이 애용한다고 했다. 워턴 서류봉치를 보자기에 싸서 퇴근한다. 퇴근후 집에서도 읽어야 하기 때문일게다. 보파리는 상당히 클 법도 하고 무겁기도 할텐데. 이어령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보자기는 가방에 비해, flexible하다던가. 싸는 내용물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달라지는 거

다. 보자기와 보파리.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데 보자기 보단 보파리는 덜 유쾌하다. 보파리는 보통이라 할 수도 있었는데 작은 짐을 싸는데 필요한게다. 소쩍새 우는 바위고개 넘는 보통이를 머리에 인 아낙 모습이 힘겹고 처량하기도 싶다.

우리집에도 지하실엔 안쓰는 물건이 차고도 넘친다. 서너해 마다 정리를 하긴 한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다시 쌓인다. 게으른 탓도 있다만, 난 좀처럼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다. 버릴것은 버려야 하는데, 버릴 수 없는게 문제인 게다. 보자기에 싸서 버려야 할까?

안쓰는 물건인 남편도 팔릴때까진 관리유지가 필요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마태 11:28)

벼룩시장이라 한다. 새물건은 아닐텐데, 중고품을 사고 판다. 새물건을 바자회나 벼룩시장에서 찾는다면 연목구어緣木求魚라 해야겠다. 엉뚱한 곳에서 헤매며 찾는다는 말이다. 돌아오는 있는 대답이야 뻔하다. “판데가서 알

아 보시라.’ 백화점에 가보시라. 받은 카톡에서 한줄이다. ‘바자회를 한다며 집에서 안쓰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라 했더니, 전부 남편을 끌고 나왔다 합니다. 요즘 안 쓴다고요.’ 덩달아 언젠가 한국신문에서 읽었던 한구절이다



**MassDREAMS Grant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 분들에게**  
**주택구입시 계약금 및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보조금 입니다.**

\*First-time Home Buyer(첫 주택 구입자)는 최근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을 갖춘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50,000**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MassHousing에서 최대 \$50,000까지 계약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용자에 대한 실직 보호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다른 혜택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적어도 한 명의 신청자는 COVID-19에 의해 불균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커뮤니티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 모든 적격 차용인은 First-Time Home Buyer(첫 주택 구입자)\*임을 증명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에 주 거주자로 거주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No Repayment Required**

보조금은 계약금에 사용 할 수 있고 추가 자금은 클로징 관련 비용, single borrower-paid mortgage insurance premiums 및 이자율 상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Cities disproportionately impacted by COVID-19:**

Attleboro	Fitchburg	Lynn	Randolph
Barnstable	Framingham	Malden	Revere
Boston	Haverhill	Methuen	Salem
Brockton	Holyoke	New Bedford	Springfield
Chelsea	Lawrence	Peabody	Taunton
Chicopee	Leominster	Pittsfield	Westfield
Everett	Lowell	Quincy	Worcester
Fall River			

**Contact me today to see if you qualify**

NOTE: Potential homebuyer must be pre-qualified for assistance through [www.mymasshome.org](http://www.mymasshome.org) before applying to MassHousing. [www.emasshousing.com](http://www.emasshousing.com)



**Michael Lee**  
**LOAN OFFICER**  
 NMLS#: 1464242  
 cell: (978) 314-8818  
[mike.m.lee@movement.com](mailto:mike.m.lee@movement.com) | [lo.movement.com/mike-mlee](http://lo.movement.com/mike-mlee)



576 Washington St, Wellesley, MA 02482 | [www.movement.com](http://www.movement.com)



MA-ML01464242, NH, RI | Movement Mortgage LLC. All rights reserved. NMLS ID #39179 (For licensing information, go to: [www.nmlsconsumeraccess.org](http://www.nmlsconsumeraccess.org)). Additional information available at [movement.com/legal](http://movement.com/legal). Interest rates and product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and may or may not be available at the time of loan commitment or lock-in. Borrowers must qualify at closing for all benefits.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눈과 입주위가 떨리는 얼굴경련 '안면연축' 원인과 치료법은?

**안면연축**  
한쪽 얼굴 근육이 의도치 않게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현상

**안면연축과 안면마비의 차이?**

<b>안면연축:</b> 안면 신경의 <b>자극 증상</b> 눈과 입이 의도치않게 움직임	<b>안면마비:</b> 안면 신경의 <b>기능 마비</b> 입꼬리·눈 움직이지 않고 이마 주름 마비
---	--

**안면연축 치료법**

약물치료	보톡스 주사	수술
------	--------	----

자료제공: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신경과 류 창환과장의 도움을 받아 안면연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안면연축(경련)은 한쪽 얼굴 근육이 의도치 않게 간헐적,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질병으로 눈꺼풀에만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입 주변 근육이 함께 실룩거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쪽에서만 증상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증상은 한쪽눈이 떨리거나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사례가 많고 심하면 눈이 저절로 감기거나 얼굴이 일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안면연축은 안면 신경의 자극증상으로 눈과

입이 의도치 않게 미세하게 떨리는 경련성 증상을 말한다. 그러나 안면마비는 안면 신경 기능 마비로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고 눈이 감기지 않으며 이마주름이 마비되는 것이 특징이다.

둘은 다른 질병이며 당연히 치료법도 다르다. 하지만 안면마비 후유증으로 안면연축이 발생할 수 있다. 안면연축의 원인은 주로 뇌혈관이 안면 신경을 압박해 발생하는데 임상적으로 의심되면 뇌혈관과 안면 신경 관계를 평가하고 종양, 다발성 경화증 등 이차적 원인 확인을 위해 혈관을 포함한 뇌 MRI 검사를 할 수 있다.

한편 안면 신경 기능 평가를 위해서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다.

치료법은 약물치료, 보톡스 주사, 수술의 3가지 방법이 있다.

약물치료는 신경안정제, 항경련제, 근이완제

, 항콜린제를 사용하는데 비교적 효과는 좋지만 길게 지속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중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다른 신경학적 이상이 없다면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보톡스 주사를 주로 사용한다.

보톡스 주사는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평균 3-6개월 주기로 처방한다. 보톡스 치료는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맞을수록 약효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결국 수술만이 지속 가능한 치료인데 대표적인 것이 '미세혈관감압술'이다. 이 수술법은 귀 뒤쪽으로 접근해서 원인 혈관과 안면 신경 사이 패드를 넣는 수술법이다. 보통 약물치료와 보톡스 치료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고려할 수 있다. 안면연축은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치료를 방치하면 안면 떨림과 얼굴 찡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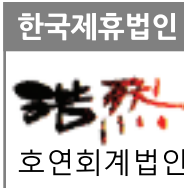
림이 심해지며 이로 인한 수치심과 불안, 우울 증 등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조 기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눈과 입주위가 떨리는 얼굴경련 ‘안면연축’ 원인과 치료법은?”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영리더십심포지움(YLS)

speakers who will share about  
"Building Your Own Identity."



Sam Hyun



Sarah Kim



Imari Paris Jeffries

##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presents the 10th annual*

### YOUNG LEADER SYMPOSIUM

Theme: Building Your Own Identity

Nov. 12, 2022 | 12-4PM | Four Points by Sheraton  
Boston Newton



RSVP via Eventbrite by scanning QR code

Lunch will be provided. Limited seating available -  
RSVP ASAP!

Sponsored by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oston



★ QUINCY ★

H MART MA

Thank you

SWEEPSTAKES!

GIVING AWAY A TOTAL OF

\$14,000

IN GIFT CERTIFICATES

TOTAL  
255

WINNERS

NOV. 4th, 2022 - JAN. 31st, 2023 (Only at H Mart Quincy Store)

Drawing Date : FEB. 3rd, 2023 @ H Mart Quincy Store



**So Many Winners, You could be next!  
Don't miss the chance to win.**

Simply insert your receipt into the drawing box before you leave the store. **A total of 255 lucky winners** will be chosen!

**H Mart 상품권 당첨 기회를 잡으세요!**

H 마트 퀸시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응모함에 넣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총 255명 고객님들에게 특별한 경품을 드립니다.

**GRAND PRIZE : \$1,000 H Mart Gift Certificate (1 winner)**

**1<sup>ST</sup> PRIZE**  
\$500 H Mart  
Gift Certificate  
(4 winners)

**2<sup>ND</sup> PRIZE**  
\$300 H Mart  
Gift Certificate  
(10 winners)

**3<sup>RD</sup> PRIZE**  
\$100 H Mart  
Gift Certificate  
(40 winners)

**4<sup>TH</sup> PRIZE**  
\$20 H Mart  
Gift Certificate  
(200 winners)

\* Per state law, free entry for sweepstakes is available at the customer service. No purchase necessary to win.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 2022' Veterans Day



**Greater Lowell Veteran's Council**  
In partnership with  
**Korean American Society of Massachusetts**

## 재향군인회날 기념행사 공동주최 로웰재향군인회 / 매사추세츠한인회

Remembering & honoring all our Korean War Veterans  
Deployed and era from 1950 - 1953  
Security Forces from 1953 - today

**모든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기억하고 존중합니다.**

**Veterans Day - November 11, 2022**  
Lowell Memorial Auditorium  
Doors open: 10:00am / 행사시작  
Ceremony: 11:00am / 기념식  
Cost: FREE (Donations accepted)

**“ 후원을 받습니다. ”**

Dance performance by: Korean Dance Academy  
**한국 고전무용 공연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Service men & women pay for it**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희생 과 봉사 의 댓가 입니다.**

Lowell Memorial Auditorium : 50 E Merrimack St, Lowell, MA 01852  
행사 후 식사를 대접합니다. 행사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상담 : 서영애 회장 978-807-1622 / 정대운 사무총장 978-461-2424



HOME RENOVATION  
**NAMU** |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FULLY LICENSED AND INSURED**

- MA Construction Supervisor License (General contractor) 건축자격증 보유
-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 가입

무료  
견적 상담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www.namuma.com  
info@namuma.com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INSTAGRAM  
@namu\_finewood



#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